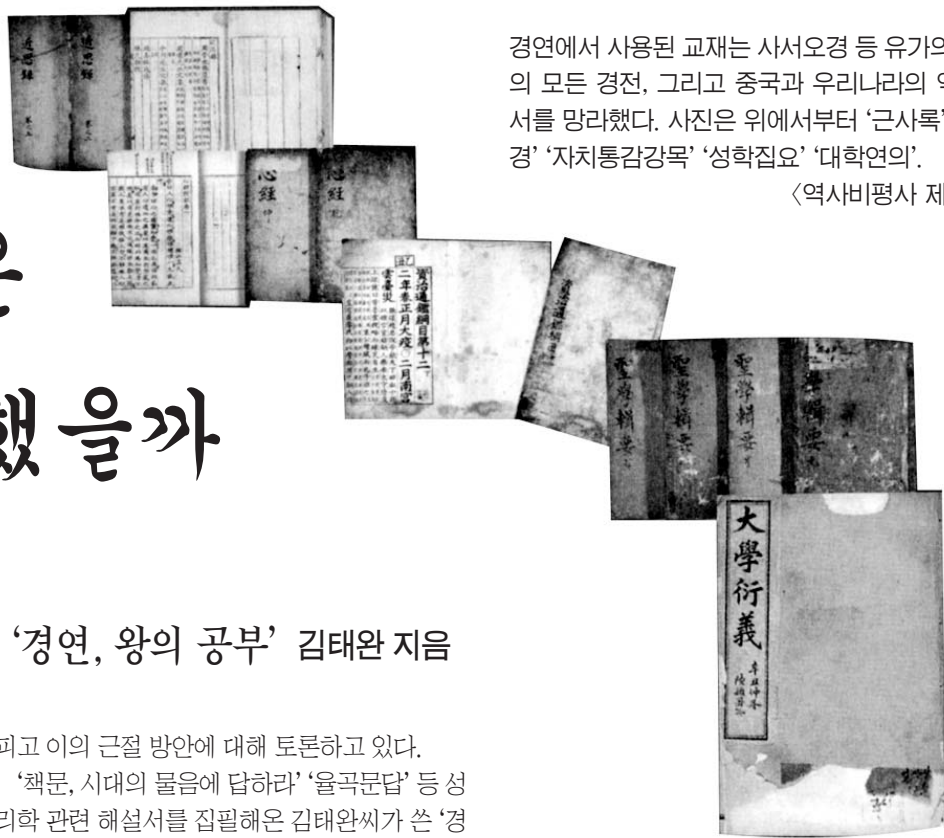


실제 경연의 기록

왕과 신하들은 어떤 논의를 했을까



경연에서 사용된 교재는 사서오경 등 유가의 거의 모든 경전,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서를 망라했다. 사진은 위에서부터 '근사록' '심경' '자치통감' '성학집요' '대학연의'. <역사비평사 제공>

참찬관(參贊官) 성현: 공자가 일찍이 말하기를 “귀신은 공경하되 멀리한다”(敬鬼神而遠之-論語 ‘雍也’)라고 하였으니 모든 음사(淫祀)는 배척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성종(成宗)에 있던 무당을 모두 외방(外方)으로 내쫓도록 하였으나, 쫓았다 하면 다시 돌아오므로 성종의 음사가 없어지지 않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임금: 이미 금령이 있었는데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

도승지 흥귀달: 법의 금지가 조금 해이해져서 음사를 하는 집이 간혹 있기는 하나, 세속에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세우므로, 금하여 없애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성현: 모두 근절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성종에는 용납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 더욱 명백하게 금지하도록 하라.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성종 10년(1479년) 3월 28일 '경연(經筵)의 한 장면이다.

이처럼 경연이란 임금이 당대 최고의 석학들과 더불어 유가의 경전과 중국·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자리다.

이날 경연에서는 성종과 학자들이 '논어'를 텍스트 삼아 민간에 흥행하고 있는 음사에 대해 살

'경연, 왕의 공부' 김태완 지음

피고 이의 근절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책문,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율곡문답' 등 성리학 관련 해설서를 집필해온 김태완씨가 쓴 '경연, 왕의 공부'는 조선 왕조의 통치수단이자 수양의 장치였던 경연에 대해 살펴본 책이다.

저자는 오랜 연구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경연의 유래와 역사, 경연에서 쓰인 교재, 경연관의 선발 방법, 경연 절차와 목표 등 경연의 모든 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당시 경연은 아전의 조강(朝講)과 정오의 주강(晝講), 오후 석강(夕講)의 삼시강과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특강 또는 보강 형태의 소대(召對)로 구성됐다고 한다.

'지존'으로서 이렇게 많은 경연을 소화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유교 정치를 표방한 조선의 왕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경연을 열어 공부하고 정사를 논의함으로써 당대의 문재와 평생의 공부를 현실 정치에 적용하고 응용하려고 했다. 그것이 바로 왕의 공부였으며, 나라를 경영하는 원리였던 것이다.

책은 단순히 경연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연의 기록과 역사적 사실을 연결, 당시의 왕과 신하들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구체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 경연의 모습을 '조선왕조실록' 등 문헌에서 발췌했고, 특히 '경연의 기록, 그 숭고한 작업' 편에서는 명종부터 선조대까지 대유학자였던 고봉 기대승과 율곡 이이가 남긴 '논사록'과 '경연일기'의 기록을 뽑아 경연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저자는 옛 경연의 기록을 가져와 그대로 보여주되, 풀이를 통해 당시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나아가 이를 오늘에 비추어 논평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저자는 "조선시대 경연에서 논의한 내용은 단지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도 되풀이되는 모습과 흡사해 깜짝 놀라게 된다"고 말했다.

책 곳곳에 이야기꾼으로서 재치가 돋보이며, 짤막한 글들을 덧붙여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며 사진과 그림, 풍부한 참고문헌을 첨부해 사료적 가치도 충분하다. <역사비평사·2만2000원>

/김태완지자 bigkim@kwangju.co.kr

사진으로 담아낸 강제 징용 조선인들의 흔적

'... 일본을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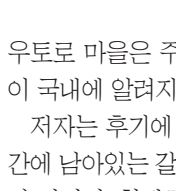
이재갑 지음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재갑씨가 일제강점기 강제 징집됐던 조선인들의 흔적을 사진으로 담아 낸 '한국사 100년의 기억을 찾아 일본을 걷다'를 출간했다.

저자는 15년에 걸쳐 후쿠오카, 나가사키, 히로시마, 오사카 등 일본 곳곳을 답사하며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 서린 역사를 되짚었다. 책에는 조선인들의 고향 땅이 서린 흔적들과 당시의 기억을 지닌 여러 사람의 증언이 생생한 사진과 함께 담겼다.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도모나미 마을 앞바다에 아직도 훔볼스럽게 서 있는 탄광 구조물은 1942년 2월 해저 탄광 침수사고로 목숨을 잃은 134명 조선인의 흔을 고스란히 안은 상징이다. <살림·1만4800원>

당시 사고 은폐에 골몰했던 일본은 유해 발굴조차 허락하지 않아 아직도 이들의 유해는 바닷물 속에 남아 있다.



그러나 이번 전쟁 중 교통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00여 명이 살았던

우토로 마을은 주민들이 강제 퇴거 위기에 몰린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관심과 도움이 전달된 것이다.

저자는 후기에 "궁극적으로 이 작업들은 결코 한일 간에 남아있는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철저히 앞만 보고 시작한 일"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청산이 올바르게 이뤄져야 했다"고 쓰고 있다.

/김태완지자 bigkim@kwangju.co.kr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훈훈한 잔소리

'잠깐 쉬었다가'

손봉호 지음

사회개혁운동가, 신앙과 지성의 통합을 이룬 인물로 알려진 손봉호(73)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 교회 안팎에서 존경받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낸 그가 인생 후배들에게 들려 주고 고된 유머와 철학을 담은 에세이 '잠깐 쉬었다가'를 출간했다.

"따뜻한 남자 손봉호 교수의 훈훈한 잔소리"라는 부제가 붙은 책은 무겁지 않은 문체로 다양한 생각들을 펼쳐낸다.

책은 '행복' '환경' '정의' '통찰' 4부로 구성했다. 1부 '나의 행복'에서 손 교수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재미와 위트를 곁들여 정감 있게 그려냈으며 2부 '환경의 윤리'에서는 손 교수의 환경 사랑이야기가 담겨 있다.

3부 '사회의 정의'에서는 바른 사회를 위한 손 교수 특유의 잔소리를 담았으며 마지막 4부 '철학의 통찰'에서는 자신의 철학적 인생관을 소개하며 "정치와 성실의 길이 곧 성공의 길이"를 강조하고 있다.

포함 출생인 저자가 경주로 유학해 영어 공부에 매진하게 된 이야기, 고등학교 시절 학교신문을 통해 교장 선생님을 비판한 이야기, 영문학을 전공한 후 신학과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야기 등 손 교수의 내밀한 개인사까지 담았다. <휴먼서사·1만4000원>

/김태완지자 bigkim@kwangju.co.kr

이문구가 만난 동료 문인 21명의 세상살이

'이문구의 문인기행'

이문구 지음

'관촌수필', '우리 동네' 등을 펴낸 소설가 이문구의 글쓰기는 개성이 강하다. 풍부한 우리말 어휘와 개성적인 문체는 '이문구 문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가 동료 문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이문구의 문인기행'은 그래서 다른 이들이 써낸 인물 이야기와는 읽는 재미가 다르다.

'글로써 벗을 모으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는 한국문학의 거목 중 한명인 김동리를 비롯해 한국의 내로라하는 작가 21명에 대한 재미진 에피소드와 기행이 이문구의 걸출한 입담으로 생생히 살아난다.

그가 지극한 '순정의 오판'에 칭찬 황석영에 대한 이



야기, '큰살을 품은 큰살'이라 추도한 이호철, '사계가 한 몸'에 공존하는 '전천후 인간'이자 '나라에 천연기념물 보호법은 있어도 이런 천연기념물 보호법은 없는지 다시 생각하고 싶다'고 표현한 '송선생' 송기숙 등 다양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책은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는 고은·신경림·한승원·염재만에 대한 인물평이 담겼고, 2부는 박용래·송기숙·조태일이 쓴 단행본의 '발문'을 실었다. 3부는 문예지에 연재한 작가탐방이다. 황석영·박상룡·김주영·조선학 등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마지막은 이호철·윤홍길·서정주 등에 대한 실명 소설 추도사다. <에르디아·1만3000원>

/김태완지자 bigkim@kwangju.co.kr

피로워 하는 당신, 외도 극복 심리학

'비틀즈' 조지 해리슨의 삶과 음악

'착한 사람도 바람난다'

미라 커센바움 지음

사회 문제인 '바람'과 '외도'를 심리치료의 입장에서 다룬 '착한 사람도 바람난다'가 번역, 출간됐다.

심리치료 전문가 미라 커센바움이 쓴 이 책은 외도라는 엄청난 드라마에 휘말려 피로워하는 이들에게 오랜 임상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특별한 해법과 위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외도의 유형을 '긴가민가형' '비상탈출형' 등 17가지로 나누고, 유형별로 특성이 무엇인지와 그 해결



책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저자는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기만과 배신 행위의 원인이 깊은 불만족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인다. 또 이 혼란스러운 이중의 관계를 벗어나 삶을 가지런하게 재정리하는 법도 알려준다. 위기에 처한 부부나 연인에게 냉철한 충고와 더불어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라이프맵·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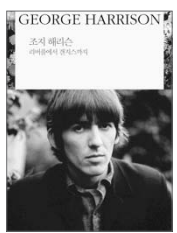
/김태완지자 bigkim@kwangju.co.kr

'조지 해리슨'

고영탁 지음

존 레논, 폴 매카트니에 비해 조명은 덜 받았지만 그룹 '비틀즈'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던 조지 해리슨의 평전이 나왔다. 올해로 10주기를 맞은 그의 삶에 찬찬히 더듬은 책 '조지 해리슨-비틀즈에서 갠지스까지'를 펴낸 이는 음악 잡지 '이즘'에서 활동을 시작 음악 지 기자 등을 거친 고영탁이다.

책은 영국 리버풀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세계를 좌지우지한 최고의 밴드로 활동했고, 자신의 빠가 인도



갠지스강에 뿌려 지길 바랬던 뮤지션 조지 해리슨의 삶과 음악을 소개한다. 책은 특히 비틀즈 해체 이후 솔로 활동을 하며 부귀영화의 삶을 버리고 인도 힌두교에 천착하며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관을 조명한다. 또 자신의 전부인과 결혼한 영원한 동지 에릭 클랩튼과의 인간적 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다. <오픈하우스·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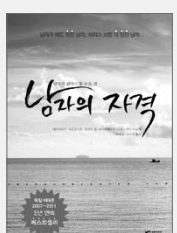
/김태완지자 bigkim@kwangju.co.kr

신간

▲클릭 미=2008년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소설가 고예나(27)의 세 번째 장편. 인터넷 시대의 연애에 주목했다.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사람을 찾고 인터넷이라는 가면 뒤에서 이중적 생활을 일삼는 요즘 젊은이들의 풍속도를 그렸다. 주인공인 나 '정인희'는 가난에 찌든 20대다. 온라인에서는 눈송이 선생으로 일하고 오프라인에서는 키스방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번다. <은행나무·1만1500원>

▲오바바 마을 이야기=스페인 북부 상상의 마을 '오바바'를 무대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이야기로 26편을 담은 연작 소설집이다. 저자 베르나르도 아치가 피레네 산맥 주변 바스크 지방에서 내려오는 구전 문학을 바탕으로 재창조했다. 멧돼지로 변해버린 외로운 소년에 대한 이야기부터 사라진 남편을 찾아 아바존 림으로 들어간 아일랜드 여자, 귀족으로 들어가 뇌를 파먹는 도마뱀 이야기 등이 펼쳐진다. <현대문학·1만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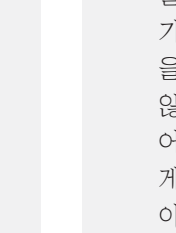
▲들음수록 신기한 사할 이야기=속리산 반부사 팔상전 현관에 숨은 뜻, 계곡으로 떠나려간 배추 잎사귀를 불잡고자 절에서 뛰어내려 온 스님, 까니만큼 쌀이 나오는 바위 구멍, 나무로 다시 살아가는 스님의 지평이,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밥을 흘리거나 소리를 내는 불상과 비석 등 전국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담았다. 재미있는 사할 이야기를 통해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우리나라 불교 역사도 살펴본다. <조계종출판사·1만3000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여행의 기술=안전한 여행을 위한 친절하고 유용한 책과 달리 '길을 잃으라'고 말하고 있는 이색적인 여행 안내서다. 저자들은 "길을 잃어야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며 "길 잃기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길 잃는 법과 더불어 격투기에서 낙법을 배우듯 '길 잃고도 당황하지 않는 법'도 가르친다. "길을 잃어라. 대신 침착하게 되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색다른 울림을 준다. <김영사·1만2000원>

▲남자의 자격=독일 일간지 '취트도이체 차이퐁'의 에두아르트 아우구스틴 등 기자들이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남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스테이크 굽기, 연봉 인상 요구하기, 와인 알고 마시기, 식스팩 만들기부터 여자가 운전하는 동안 조용히 있기, 코 고는 여자 조지하기 등 일상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인 조언들로 가득 차 있다. <지상사·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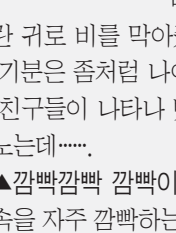
▲중독=제8회 광동성 루인 문학상을 받은 중국작가 싱커이가 2003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급변하는 중국 현대사회에서 방황하고 상처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1990년대 중국이 경제적으로 한창 발전하던 시기에 경제특구로 지정된 선전이 무대다. 여주인공 '취이니'는 남편, 첫 사랑, 새로운 남자를 거머쥔 완전한 사랑을 바란다. <지음과모음·1만3000원>



▲여름이 좋아 물이 좋아=물놀이 많은 요즘 아이들에게 안전한 물놀이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물놀이 시작하기 전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운동하기, 쉬어가며 물기, 음식을 먹은 후 바로 들어가지 않기 등 안전 수칙과 더불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도록 했다. <문학동네·1만원>

▲반구대 암각화 이야기=반구대 암각화에 숨겨진 선사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상목 울산암각화박물관 관장이 맡아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으로 아득히 먼 옛사람들의 삶과 예술에 대해 조곤조곤 풀어냈다. <리진·1만원>

▲내가 좋아하는 음식=세밀화로 그린 어린이를 위한 음식 도감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다. 쌀과 보리, 밀 같은



은 대표적인 곡식은 물론이고 고구마, 땅콩, 감자, 참깨 같은 다양한 먹을거리의 특징도 꼼꼼하게 설명해준다. <호박꽃·1만5000원>

▲밖에 나가 놀거야=아기 코끼리 '코보'와 아기 돼지 '피기'가 비 오는 날 겪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그린 그림책이다. 밖에 나가 놀 생각으로 한껏 부푼 피기. 하지만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코보가 커

다란 귀로 비를 막아졌지만 잔뜩 실망한 피기의 기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그때 지렁이 친구들이 나타나 빗물을 튀기며 신나게 뛰어들어준다. <푸른솔주니어·8500원>

▲깜빡깜빡 깜빡이 공주=얼굴은 예쁘지만 약속을 자주 깜빡하는 '희주'를 통해 약속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일부러 깜빡하는 게 아닌데도 약속을 어길 때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희주를 멀리한다. 이런 희주를 돕기 위해 노란 새 '라라'가 나타나는데, 라라는 약속을 지킬 용기가 없어진 희주 곁에서 몰래 그 해결방법을 알려준다. <소담출판사·8000원>

어린이 책꽂이